

정주영의 ‘인본주의’ 이념 기반, 인류 위한 혁신 나선다

〈현대그룹 선대회장〉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 삽

정의선 회장 “전기차 투자 지속 확대 혁신하는 궁극의 목적, 결국 사람 미래차 시대도 사람 힘 강력할 것”

첫 생산 ‘코티나’ 복원차량 전시 선대회장 업적에 울산공장 사료도

“우리에게는 세계 제일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이다. 머지않아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한다.”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EV전용공장 기공식 현장은 인공지능(AI)을 통해 구현된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주영 선대회장은 사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정몽구 명예회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정 선대회장과 정 명예회장의 메시지를 들은 뒤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 올랐다. 정 회장 역시 인본주의 정신 아래 수많은 임직원들의 노력을 밑거름으로 성장해온 발자취를 전동화 시대에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정 회장은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를



울산공장의 과거 50년을 살필 수 있는 사료들을 전시한 헤리티지 전시장에 과거 직원의 월급봉투와 사원증, 품질을 고민한 노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양성운 기자

만드는 것은 고객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를 만드는 작업자를 위한 공장 환경을 구현할 것”이라며 “현대차가 혁신하는 궁극의 목적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첫 관문은 전동화로 울산 EV전용공장은 전동화 시대 모빌리티 생산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난 50년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배운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큰 꿈을 이뤄 간 선배님들과 같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도 사람의 힘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선배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 선배님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꾸준히 개척했고 이 과정에서 익힌 노하우를 동료와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 회장과 현 경영진을 비롯해 윤여철·김억조 전 부회장, 윤갑한 전 사장 등 과거 울산공장장을 지냈던 이들이 참여했다. 또 현대차 첫 독자모델 포니와 포니 쿠페를 비롯해 포니 액셀·프레스토·스텔라 등을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탈리아 디자인 대 표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는 이번 기공식을 기념해 울산 공장서 처음 생산했던 코티나 복원차량을 비롯해 정주영 선대회장의 업적 등 울산공장의 과거 50년을 살필 수 있는 사료들을 전시했다. 과거 직원들의 월급봉투와 사원증, 품질을 고민한 노트 등 공장 주역인 임직원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도 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 헤리티지홀에서 일반 시민도 무료로 접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



울산 EV 전용공장 조감도



13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울산 EV 전용공장 기공식을 맞아 진행되는 헤리티지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완성차 업체가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손잡고 배터리 합작법인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철화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전동화 분야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고 비용 절감이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에서 어찌 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주행사험장 부지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고 있다. 연산 20만대 규모로 2026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 새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사

람이 중요하다고 정 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현대차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휴머니티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는 고객뿐만 아니라 작업자를 위한 공장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로봇 기술, 스마트 물류시스템, 인공지능 혁신기술은 안전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장을 만들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울산공장 ‘전기차 허브’서 계속

“정부, 세제 혜택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은 생산 라인의 기술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고, 도전하면서 발전해왔다”며 “사람의 힘으로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온 울산공장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현대차는 사람을 위한 혁신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의 성장에 현대차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결단력 있는 투자로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의 강자로 우뚝 설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도 과감한 세제혜택, 킬러규제 혁파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울산=양성운 기자

“故신격호, 韓-日 경계넘은 시장 개척자... 혁신적 사고 높이 평가”

오사카상의 ‘기업가 연구 포럼’ 롯데창업주 탄생 102주년 조영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1년, 무일푼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명문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면서 창업한 롯데를 재벌 그룹으로 성장시킨 고(故)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탄생 102주년을 맞아 그의 기업이 정신을 조명한 연구자료가 발표돼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본 ‘기업가 연구 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경영학 특별강좌에서는 ‘경계 없는 시장 개척자, 롯데 신격호’란 주제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양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했던 신격호 창업주의 기업이 정신을 조명하는 강좌였다. 이번 특별강좌를 주관한 ‘기업가 연구 포럼’은 2002년 오사카상공회의소가 설립



신격호 롯데 창업주 /롯데그룹

립한 단체로 기업 연구, 인재육성, 경영조직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이를 재계와 학계에 공유하고 있다.

이번 신격호 창업주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 연구 포럼’의 의뢰를 받아 시작됐으며, 오사카경제대학의 백인수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연구는 한·일 롯데 대졸 공채 1기로 입사한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기여한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의 인터뷰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있는 신격호 기념관과 생가, 롯데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의 고증을 거쳤다.

연구자료는 신격호 창업주가 한국과 일본에서 이룬 경영 성과를 소개하며 신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이것이 현대 경영학에 던지는 시사점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한국에 투자하고 이를 제조, 유통, 화학 분야까지 넓힌 과정 속에서 신 창업주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기 위해 했던 행동 원칙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국가, 조직, 산업 분야 등에서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펼쳤던 혁신적 사고가 신격호 창업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의견을 경청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었던 점 등도 성공 비결로 꼽았다.

연구자료에는 신격호 창업주가 현대 경영인에게 주는 시사점도 포함됐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꾸준히 새로운 사업을 찾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양손잡이 경영 ▲서로 다른 사업 분야와 사람을 조합해 전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크로스오버 경영 ▲본인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 활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오케스트라 경영 마지막으로 ▲고객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는 퍼포스 경영 등이다.

요시히로 에시마 기업가 연구 포럼 부회장은 “경영자가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

공의 관건이며, 그 원동력으로 기업이 정신 및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신격호 창업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신 창업주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을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발표를 담당한 백인수 오사카경제대학 교수는 “한 세대(100년)에 걸쳐 사업을 영위했던 신격호 창업주를 짧은 시간에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며 “앞으로 신 창업주가 국가, 산업분야 등 경계를 뛰어넘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경영혁신 DNA를 추출하고 분석해 많은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